

무교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임 돈 희

(동국대학교)

무교란 말보다는 무속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속을 다른 종교 즉 유교, 기독교처럼 권위 있는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파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무교의 사제자인 무당은 다른 종교의 사제자들인 불교의 스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들과 같은 사회적 권위가 인정받고 있기 않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 신도도 무당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이 희박하다. 따라서 무속의 가르침이란 것도 의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보다는 비공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교의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무속의 교육학적 연구는 김인회 교수가 『한국인의 가치관 - 무속과 교육철학』이라는 저작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다. 김교수는 교육학과 무속 두 방면의 전문가답게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심도 높은 분석을 하였다(김인회, 1979).

본 논문에서는 무속의 신관, 그리고 굿이라는 의례절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이 한국인의 현실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무속에서의 가르침은 인간관계가 이해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다”하는 실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무속의 참가자들(신도)과 사제자(무당) 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 무속의 신관 - 병립신관

무속의 신들은 우선 그 숫자가 많다. 신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로 만신이라 하는데 이것은 만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으로 신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 많은 신들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각자 소정의 직능을 가지고 그 직능의 한계 내에서만 그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속의 신관이다. 예로 산신은 산에 관한 일만 관장하고 있으며 용왕은 바다, 강, 우물 같은 물을 관장한다. 또한 산신은 하나의 산신이 모든 산들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은 각기 다른 산신들이 관장하고 있다. 남산에는 목멱신이, 백두산에는 백두산신이 그리고 지리산에는 지리산신이 각기 따로 있어 관장하고 있다. 또한 각 집 안에는 여러 가신들이 있는데 마루에는 성주신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그리고 장독에는 터주, 문에는 문신 등이 있다. 또한 각 집마다 관장하는 성주신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성주신의 숫자도 집의 숫자만큼 많은 것이다. 그런 반면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이나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은 각 집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개인에게서나 동일 신으로 신봉되어진다.

그런데 무속의 이들 다양한 신들간의 관계는 계급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상호 대화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임석재는 이러한 한국 무속의 신통을 병립신관이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무속의 신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속에 있어서의 신통에는 최고신도 없고 하위신도 없고 또 수장신도 없고 종속신도 없는 신통조직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신들은 그들 사이에 명령, 지시, 협응, 조력, 청탁, 지배, 복종 등의 사회성적 교류는 전연 없고 완전한 물교류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각 신들은 각각 특정의 직능을 가지고 각기 대등한 격위로서 독립하여 다만 사람하고만 여러 관련을 맺고 갖가지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완전 독립하여 대등한 격위를 가지고 있는 신통조직을 병립신관이라 명명하려고 한다”(임석재, 1970: 88).

여기에 비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의 신들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신들은 위계질서가 뚜렷하며 신들간에 명령 지시 복종 등의 대화가 활발하다. 맨 상층에 있는 신이 황제에 해당하는 옥황상제 신이고 그 밑에 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리고 시, 군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고 가장 하위 신으로 토지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신도 있다. 암행어사 신은 각 지역의 신들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는가를 감시하고 만약 등한히 하였을 경우 옥황상제신에게 보고하여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키기도 한다. 신에 대한 예우는 각 신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예로 도지사 신의 영정을 옮길 때는 여덟 사람이 운반한다면 토지공의 영정은 두 사람이 운반한다든가 함으로써 차별대우를 한다(Wolf, 1972). 마치 현실세계에서 대통령은 벤츠로 모시고 군수는 소나타로 모시는 것과 흡사하다.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신들의 관계는 상이하다. 민간신앙은 그 민족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병립신관적인 태도는 한국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은 자존이 매우 강한 민족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자신을 내세우고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될수록 계급적인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매우 위계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 표면이지 내심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도 겉으로는 상사 대접을 해서 매우 위계적인 관계를 갖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심복하지 않는 태도 같은 것은 이러한 심성의 발로라 하겠다.

최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와 같은 병립신관적인 문화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LA시 당국은 80년대 중반 코리아타운 구획정리(zoning)를 시도했다. 방만하게 퍼져가기만하는 타운을 응축시켜 슬럼화를 막으려는 초보적 재개발 구상이었지만 유야무야됐다.

한인들 의사를 모아 줄 실행력 있는 대표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틀 도쿄의 성공적 재개발을 기억하는 당국은 94년 다시 코리아타운 재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본격적인 도시재개발(CRA)이었다 ……”

인간관계위원회가 최근 낸 보고서는 “한인 커뮤니티에 술한 단체들이 있지만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룹은 없어 시 당국이나 타민족 커뮤니티에 대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커뮤니티의 경우 28개 종친회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華人박애협회(CCBA)가 대외창구 역할을 하면서 내부갈등까지 조

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조선일보, 1996년 11월 4일자 37쪽).

Ⅱ. 신, 조상신 그리고 귀신

무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신(gods), 조상신(ancestors) 그리고 귀신(ghosts)의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현실세계에서의 관리, 친족원 그리고 거지들을 반영한 것이다(Wolf, 1972).

굿이란 인간이 원하는 바를 신에게 청원하는 의례이다. 굿은 음식을 차려놓고 신을 청해서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였으니 원하는 바를 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무당은 신을 모셔서 춤과 노래로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굿을 청한 기주의 원을 들어줄 것을 신에게 요청한다.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관리에게 무엇을 원할 때 하는 방법과 똑 같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관의 허가를 원할 때 관리를 기생집에 데리고 가서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부탁을 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굿에서의 신과 인간과의 상호 행위는 신이 인간의 정성이 부족함을 탓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인간은 잘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며 다음 번에는 더욱 자주 찾아 뵙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일 것을 약속하며 신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복을 내리겠다는 말로서 정형화되어 있다. 이부영은 이것을 공수의 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공수의 논법은 1) 무신의 위협, 비난(차려놓은 것이 보잘 것 없다, 2) 신자의 업살과 벌기(뱌달라), 3) 무신의 조건부 용서(이번만은 봐준다), 4) 축복과 타이름 등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이부영, 1982: 164).

이와 같은 신과 인간과의 상호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민간인이 관리에게 청탁을 할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대접을 더 잘해야 하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사과와 함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번에는 더욱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한다.

무속의 신들은 인간에게 신의 공덕을 모른다고 탓한다. 인간이 이만큼 그 동안 잘 산 것은 신들이 보살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찾아 뵙는 정성이 부족함을 나무란다. 굿을 하는 이유는 집안에 긴 병의 환자가

있을 때, 또는 사업이 망했을 때와 같은 우환이 생겼을 때 한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면 무당은 예외 없이 신이 노해서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신이 노한 것은 그 동안 찾아 뵙지 않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벌을 내려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것이다. 굿은 이런 노한 신을 달래는 잔치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현실세계의 한국인에게 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관리, 스승, 웃어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시사한다. 이들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들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즉 항상 찾아 뵙고 유대관계를 계속하여야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항상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란 시간적 물적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 뵙고 하는 첫마디는 항상 “그동안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이고 헤어질 때는 어김없이 “앞으로는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이다. 제자가 교수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도 이 말이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다.

잡귀들은 현실세계에서 거지에 해당한다. 굿은 인간에 도움이 되는 신들을 초청한 잔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잡귀들도 이 굿에 찾아온다.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이다. 현실세계에서처럼 상가집이나 혼인잔치에 찾아오는 거지들과 똑 같다. 그러나 잡귀들은 굿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어느 굿에서나 신들을 위한 잔치가 끝나면 맨 나중에 뒷전거리라고 잡귀들을 풀어 먹이는 거리가 있다. 무당들은 아무리 굿을 잘해도 잡귀들이 횡방을 놓으면 굿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잡귀들에게도 꼭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처럼 거지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 거지가 행패를 부려 잔치가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들은 음식상을 집안에 차려놓고 대접하지만 잡귀는 거지처럼 문밖에다 차려서 준다. 결국 먹고 방해하지 말고 빨리 떠나서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다. 잡귀가 이렇게 음식을 풀어 먹었는데도 가지 않으면 독경쟁이를 부른다. 독경쟁이는 무당이 아니다. 독경쟁이는 경을 읽어 잡귀를 잡아 병 속에 넣고 병마개를 한 다음에 땅 속에 묻는다. 그러면 잡귀는 영원히 갇히게 된다. 마치 현 세계에서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

잡귀에 대한 태도는 현실세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주는 타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잡귀는 달래서 내쫓는 것이 무속에서의 처리 방법이다. 거지를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하기보다는 달래서 내쫓는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피해를 당해도 고발하지 않는다면 도둑도 잡기보다는 텅기는 방법을 쓰는 것은 위와 같은 무속의 처리 방법과 같다. 한국의 인간관계의 한 유형은 “빌고 달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즉 힘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윗사람에게는 신에게처럼 빌고 힘없고 도움이 안 되는 아랫사람은 달래는 문화이다.

조상신은 현실세계에서 가족과 친척들을 반영한다. 굿의 조상신들은 물론 신들처럼 집안에서 음식상을 차려 놓고 대접한다. 굿의 조상거리에 등장하는 조상신들은 유교제사에서 모셔지는 조상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유교 제사의 조상신들은 우선 남계 직계 조상들에 한하는 아주 배타적인 집단이다. 예로 자식이 없는 무자 조상, 방계 조상 등은 유교제사에서는 소외되는 조상들이다. 무속의 조상거리에 등장하는 조상들은 이 소외된 조상들도 등장한다. 장가 못 가고 죽은 시동생, 애를 낳다 죽은 시누이, 물에 빠져 죽은 아들, 총 맞아 죽은 친정 동생 등 그리고 묘자리가 불편한 조상 등이 조상거리에 등장하여 그들의 사연을 호소하고 산 친척들의 배려를 호소한다(임돈희, 1997: 105-131). 이들은 조상거리에서 자손들이 마련한 음식과 술을 대접받고 위로를 받는다. 대접받은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복을 내릴 것을 약속하고 떠난다(Kendall, 1985: 7, 106-110, 144).

조상신에 대한 대접은 현실세계에서 친족원들간의 의무 권리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우선 친족의 범위는 부계 쪽 뿐만 아니라 모계 그리고 처가 쪽의 친족원도 부계 못지 않은(또는 더 중요한) 중요한 친족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친족원은 상호 의존적이고 덕도 보지마는 부담도 가는 그런 인간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친족원은 남과는 다른 공동운명체임을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나 취업을 할 때 친척의 도움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사장의 친인척은 요직에 앉히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는 친족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장의 사촌보다는 처남이 더 요직에 앉는 것은 유교의 부계적인 친족관계보다는 무속의 친족원의 개념이 반영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이의 논문에서는 무속의 신관과 굿에서 행하여지는 인간과 초자연존재들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하는가를 시사 받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물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위성과 권위를 갖고 “교육”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신관과 굿을 통해 이해되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인간관계의 특성중의 하나는 한국인은 인간관계에 있어 상하의 계급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엄격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만 이 관계는 표피적인 관계일 경우가 많고 내재적인 심적인 호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속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신, 조상신, 그리고 잡귀가 굿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취급되는가는 현실세계에서 관리, 친척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인간관계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이 있는 윗사람에게는 찾아가 도움을 빌고 힘이 없고 폐만 주는 아랫사람은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고 달래는 인간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상호간의 도움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인희(1979). 한국인의 가치관 — 무속과 교육철학. 문음사.
 이부영(1982).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김인희 외.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 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임돈희(1997).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탓 - 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의

비교. 임돈희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 - 인류학적 접근. 집문당.

임석재(1970). 한국무속연구서설 I,II. **아세아여성연구 제9집(1970), 제10집(1971).**

조선일보. 1996년 11월 4일, 37쪽.

Kendall, Laurel(1985). *Shamans, housewives, and other restless spirits: Women in Korean ritual lif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Wolf, Arthur P.(1974). Gods, Ghosts, and Ancestors. Arthur P. Wolf ed. *Religion and ritual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